

科總창립 30돌 기념행사 거행

9월24일 … 기념강연 · 우수논문상 시상

과학기술계의 총본산인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아 창립기념일인 9월24일 창립30주년 기념행사를 갖는다.

창립30주년을 맞이하여 지난 30년동안 걸어온 발자취를 조명하고 앞으로 다가올 2천년대 우리나라 과학기술진흥을 선도할 구심체로서의 위상을 새롭게 정립한다는 목표아래 치뤄지게 될 창립 기념행사는 9월24일 하오 4시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장에서 具本英과기처장관을 비롯한 내빈과 과학기술계인사 5백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기념식을 갖는 것을 위시하여 기념강연,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 사진전 개막, 기념리셉션, 金允基 초대회장의 흥

상제막 등으로 진행된다.

특히 기념강연에서는 미국 펜실베이니아대 힘인영박사가 '과학기술의 어제와 오늘', 한국외국어대 박성래부총장이 '한국과총과 과학기술 30년' 이란 주제로 강연이 있게 되며 李壽成국무총리를 비롯 내빈과 전직 과총 임·직원 등

姜昌熙통신과학위원장 과총방문, 특별법 등 협의

국회통신과학위원회 姜昌熙위원장은 8월8일 과총으로 崔亨燮회장을 예방하고 과학기술 현안에 대해 의견을 나누었다.

관계인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년 과총의 발전을 축하하는 기념리셉션도 열릴 예정이다.

11일간 사진전시회도 개최

또한 10월4일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제2회의실에서 열릴 사진전은 1966년 9월24일 과총 창립당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그동안의 성장 및 발전과정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사진과 함께 각종 도표, 그간 연합회에서 발간한 각종 간행물 등이 전시된다.



金始中고대교수(前과기처장관)와 鄭助英 상임부회장이 함께한 이 자리에서 과총은 과학기술특별법 제정 강창회위원장 및 내년도 과총예산 확보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97학술회의우주항공분과워크숍 美서 개최협의

崔亨燮과총회장, 在美科協회장단 접견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崔亨燮 회장은 8월20일 과총회장실에서 재미한국과학기술자협회 안세영회장(美 해군기술연구소 연구원)과 이기동부회장(美 일리노이대학항공우주공학과 교수)등 신임 회장단의 예방을 받고 '97국내외한국과학기술자학술회의 항공공학분과워크숍을 내년 5월경 미국 워싱턴에서 공동 개최하는 방안을 협의하는 등 양기관 상호협력방안에

대해서 의견을 나누었다.



鄭助英상임부회장과 李傑三사무차장이 배석한 이 자리에서 재미과협측은 재미과협 사업비 증액 및 싸이언스 센터 운영문제 등에 과총이 적극 지원해 줄 것을 요청했다.